다산포럼



전성건 안동대학교 교수

얼마 전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Oscar: 아카데미상의 다른 말)를 휩쓸 었다.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짜 파구리 연찬(宴饌)을 통해 기생충의 쾌 거를 축하하고 기생충이 보여 준 사회의 식에 공감하였다. 빈부의 차이는 경제의 차이이며 경제의 차이는 정치의 수준을 보여 준다. 기생충의 오스카를 마냥 축하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봉준호 감독의 어록도 화제가 됐다. "오스카는 국제영화제가 아니다. 그저 로 컬일 뿐이다." 미국의 패거리 문화를 비 판했다고 할 수 있다. "자막이라는 1인치 의 장벽을 넘으면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 다." 영화 자체가 의사 소통을 위한 수단 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코로나와 '기생충'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 이다." 마틴 스콜세지에게 헌정한 봉준 호 감독의 말이다. 해석이 분분하다. 개 인의 고유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다 른 삶의 영역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등의 해석이 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각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닐 까? 우리 사회는 각자의 무늬를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는가?

기생충의 성과는 인문(人文)의 구현 이다. 인문은 인문(仁紋)이다. 인문은 서로를 살리는 상생(相生)을 목적으로 한다. 상대를 죽이는 상극의 정신이 아니 라는 말이다. 이를 위한 조건이 있다. 각 자의 무늬를 찾고 그 무늬로 살아가야 하 는 것이다. 주체성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철학자는 이를 '서로 주체 성'이라고도 부른다. '홀로 주체성'이 아 니라는 말이다. 기생충이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화려한 기생충의 오스카 축제 는 코로나의 정치학에 의해 잠식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진 환자, 검사 진행, 격리 해제, 사망자 등에 대한 국내외 발생 현황이 실시간 업데이트되 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코로나 해 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는 이른바 '자가 격리'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자가 격리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 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자가 격리의 순수성은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 을 격리시키는 데에서 생겨난다. 그렇다 고 타인과의 접촉으로 인해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인 것도 아니다. 주 체로서의 내가 바이러스 감염의 범위 내 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자각 및 그에 따 라 타인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그 순수성이 있는 것이다.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린 신천지이다. 길거리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다. 백화 점과 가게 그리고 식당 등에 빼곡하게 모 여 있던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도 떠난 것 일까. 그리고 늘 그렇듯 미디어 정치가 시작되었다. 모든 죽음의 원인이 코로나 가 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또 한 코로나와 연계되었다. 공천과 위성정 당 등은 코로나와 무슨 관계일까?

코로나는 천재(天災)인가? 인재(人 災)인가? 천재는 하느님의 심판으로, 인 재는 정치적 심판으로 귀결된다.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가 생각난다. 천재일 수도 인재일 수도 있겠지만, 종교적으로 정치

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다. 미증유의 사태라면 조심하면서 평소대로 생활하면 된다. 주변을 소독하 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고, 물을 많이 먹자. 차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두려워하되 멀리하자." '두려워하자' 는 말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하자 는 말이다. '멀리하자'는 말은 우리의 일 상이 무너질 정도로 그것에 의해 동요되 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평상심이 필요 하다. 문제가 목전에 다가왔을 때, 평상 심을 잃으면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는 알 수 없 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복될 것이고 극 복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의료인들의 도움 을 받아 방역과 치료에 도움이 될 일들을 찾아 실행해야 된다. 종교인들은 전염성 질 병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단체행동을 자 제하고 선교 전략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급선무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다음의 행동 요령은 찾아지기 마련이다.

제발 코로나의 정치학은 잠시 접어 두 자. 지금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여기저기 이래저래 엮지 않 기를 바란다.

社 說

비상 상황 속 '집합 예배' 꼭 해야만 하나

라 발생해 누진 확진자가 15명(9명 격리 치료, 3명 퇴원 후 자가 격리, 3명 격리 해제)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확진자 두 명은 광주 세 번째 확진자인 신천지교회 전도사 A씨와 밀접 접촉해 자가 격리됐 다가 해제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도 일요일인 지난 8일 관내 1451 개 교회를 대상으로 집합 예배 자제를 간 곡히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 등 공무원 2500여 명은 '오늘은 가정 예배를 부탁 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 고 각 교회 앞에서 집합 예배 자제 캠페인 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1043개 교회가 이 날 영상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했지만 전 체 교회 중 28.8%인 408개 교회는 집합 예배를 강행했다고 한다. 구별로는 동구

광주에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 에서 72개 교회 중 20개 교회가 예배를 했으며, 서구는 229개 중 88개, 남구는 164개 중 43개, 북구는 601개 중 160개, 광산구는 385개 중 97개 교회가 예배를

>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다중 집회 공간 인 교회가 굳이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했 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신천 지 대구교회나 과천본부 예배를 매개로 2차 이상 감염이 속출한 것 이외에도 일 부 교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 어지고 있지 않은가.

> 물론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집 합 예배를 자제함이 옳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집합 예배가 국 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 안하면,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등의 형식으로 일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 것

닻 올린 코로나 극복 전국 첫 민관협의체

광주시와 의료계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문 의료인을 전진 배치해 감 염병 공동 대책위를 꾸린 것이다.

엊그제 출범한 '코로나19 대응 광주시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광주시, 광주시 의사회, 광주시병원협회, 빛고을 전남대 병원, 전남대 의대, 조선대 의대, 대한간 호협회 광주시지회의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과 양동 호 광주시의사회장, 이삼용 광주시 병원 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점이 눈에 띈다. 기존 광주시 주도의 행정 위주 방 역 시스템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들이 참여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대책위는 앞으로 코로나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 감염과 환자 급증 등 단계별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 을 수립하게 된다. 확진자 및 접촉자 발 생 추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기능도 탄력 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감염병 전담병원 확대,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자치구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지역 의료계에서는 코로나 대 응이 전문가의 영역이어서 행정 시스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염병이 확산하면 의료 전문가들은 과 도할 정도의 대처를 주문하고, 행정 관료 들은 현실적인 대응을 고수하는 등 의견 차가 크게 벌어져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 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일보가 전문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수차레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민관 협의체 구성으로 의료계 현 장의 목소리가 방역 행정에 즉각 반영되 면 집단 감염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과 전문 의료 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역 행정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를 기 대한다.

NGO칼럼

방사능 오염수와 도쿄 올림픽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돌아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9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핵 사 고는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발생한 최고 단계의 원자력 사고이다. 지난 2011년 3 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당시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1·2·3호 기가 가동을 멈췄다. 지진으로 발생한 최 대 15m짜리 쓰나미로 침수가 일어나 비 상 디젤발전기와 축전지가 모두 잠겼다. '전전원' (全電源) 상실이라고 불리는 사 고가 일어난 것이다. 냉각펌프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에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 해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물을 가져 와 붓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결국 냉각수가 소실되자 원자로 내부에서 수 소가 발생했고, 지진 이후 하루가 지난 3 월 12일 오후 3시 36분 후쿠시마 1호기 가 폭발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그날 저 녁부터 1호기에 해수를 투입했다. 그 다 음 날인 3월 13일부터는 3호기에도 해수 가 투입되었지만, 결국 14일 후쿠시마 3 호기도 폭발했다. 이후 후쿠시마 2호기

와 4호기가 폭발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하다. 방사 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 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 오염수 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급 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 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 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이다. 더구나 일본 은 이번 2020 도쿄 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 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 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려 하고 있다. 과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작년 8월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에서 공청 회를 열고 오염수를 땅에 주입하는 방 법, 바다로 내보내는 방법, 증기로 바꿔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방법 등을 제시했 다. 그리고 이 가운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방법이 가장 시간과 비 다. 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 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 어민들은 해양 방출은 어업에 타격이 크다며 강력히 반

과연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도경 주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혈액과 소 변에서 삼중수소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 해 지역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수년째 갑상 샘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핵발 전소 오염수의 경우 일시에 많은 양을 보 관하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400여 개 핵발전소와 핵 재처리 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이에 맞먹는 양이며 우리나라 역시 태평양에 방사성 물질을 버리고 있다.

한빛 핵발전소 4호기가 운전을 멈춘 지 1020여 일 지났다. 2017년 5월 18일 계획 예방 정비를 시작한 한빛 4호기는 예정된 정비 기간인 올 9월이 된다고 해 도 재가동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 로 3년을 끌고 있다. 4호기와 함께 핵 발 전 기술 국산화 초기 단계에 처음으로 한 국이 주도해 지은 첫 번째 발전소라고 자 랑하는 3호기도 2018년 5월 11일 시작 된 계획 예방 정비로 운전이 멈춘 상태

은 3호기 124개, 4호기 121개다. 지금까 지 찾아낸 모든 핵발전소 공극의 82%를 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체르노빌과 같은 끔찍한 재 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지만 아직 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도 못했고 그 후 안전 점검을 했다던 제어봉은 가동을 다 시 시작하자마자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 켰다. 그리고 3월 6일 또 다시 1호기에서 저압 급수 가열기의 튜브 누설 증상이 발 견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한빛 1호기는

이 두 기의 격납 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후쿠시마 핵 사고는 사고가 있기 전부 터 그 위험 가능성 경고했지만, 무시되었 다. 그리고 대응은 매우 무지했으며, 시 행착오에 대한 고통은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왔다. 핵 사고의 여파는 체 르노빌, 후쿠시마를 보더라도 결코 돌이 킬 수 없다. 슬프게도 26개의 핵발전소 가 있는 우리나라도 그리 다르지 않다.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을 통한 핵발전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단순한 위협이 아 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한다.

無等鼓

매화를 보다

뒤안의 고매(古梅)에 붉은 꽃망울이 점점이 맺혀 있다. 집을 에워싼 대숲은 꽃과 대조적으로 초록 빛깔이다. 마당에 선 소년은 대나무를 쪼개 만든 홈통을 타 고 바위로 떨어지는 물을 무심히 바라보 고 있다. 맑은 물소리, 바람 소리도 들리 는 듯하다. 목운(木雲) 오견규(74) 화백 의 수묵담채화 '개울물 소리를 듣다'라는 그림 속 풍경이다.

작가는 화제(畵題)로 쓴 '연통분간성' (連筒分澗聲)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대나무를 쪼갠 뒤 통을

연결해서 산골 물소리를 나눈다는 말이에요. 집 뒤로 산골 물이 흘러요.

(대나무로 연결해서) 자기 집 마당에서 도 그 소리를 듣는 거지요. 이거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 로 작가의 욕망이고 내면의 세계입니다."

퇴계이황(1501~1570)은유독매화를 사랑했다. 평생 남긴 매화 시가 107수에 달한다. 그는 밤늦도록 매화나무 가지 끝 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본 후 넘치 는 정감을 시로 읊었다. "…밤 깊도록 오 래 앉아 완전히 일어나길 잊었는데(夜沈 坐久渾忘起)/ 향기는 옷에 가득하고 꽃

그림자는 몸에 가득하네.(香滿衣巾影滿 身)"('도산의 달밤에 매화를 읊다')

한국화가 문봉선(59) 작가는 달이 뜬 밤의 매화를 흑백의 수묵화로 보여 준다. 묵의 짙고 옅음만으로 겨울을 이겨 내고 꽃을 피워 낸 고매의 모습을 절묘하게 표 현했다. 매화 뒤편에 떠 있는 둥근 달은 묵향에 고요함을 더해 준다.

'코로나 19'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봄 은 기어이 오고야 말았다. 마침 매화를 주 제로 한 두 곳의 전시회가 발길을 이끈다.

> 목운오견규전(3월11일 까지)은 '죽청매수(竹淸 梅瘦)-대숲 맑고 매화 야위다'를 제목으로 광

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문봉선 작가전(4월 30일까지)은 '소영암 향(疎影暗香)-달빛 아래 매화 향기'를 제 목으로 서구 무각사 내 로터스 갤러리에 서 각각 열리고 있다. 같은 매회를 소재로 했지만 표현 기법이 달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느낌을 안겨 준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우려해 모두들 마스크로 꽁꽁 무 장한 요즘, 가까운 갤러리에서 매화를 보 며 잠시라도 마음에 '쉼표'를 찍으면 어떨 까 싶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 고

생일과 구로지일(劬勞之日)



황옥주 광주수필문학회 회장

'생일'이란 낱말은 어린이가 더 잘 안 다. '생일 축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 서다. 그러나 '구로지일' (劬勞之日)이나 '구로일' (劬勞日)이란 말을 생소하다 느 끼는 사람은 꽤 있을 것 같다.

한자 '구(劬)'는 '수고한다, 애쓴다'는 의미를 담은 글자다. '구로지일'은 "자식 을 낳아서 기르느라 부모가 애쓰기 시작 한 날"이라는 뜻이니 결국 자기의 생일을 말한다.

'구로'는 '시경'의 개풍(凱風)과 육아 (梦莪, 谷風편2), 북산(北山) 등의 시에 나와 있다.

국민대 하정옥 교수의 해설에 의하면 '시경'의 작품들은 약 2500년에서 3000 년 전 주나라 시대의 글로 보인다. 어떤 작품은 그 이전의 것도 있다 하였으니 '구로일'이란 말은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전부터 써 왔던 것 같다.

사전에서는 낳아 주신 어머니의 은덕 을 구로지은(劬勞之恩)이라 하고, 그은 덕을 생각하는 마음을 구로지감(劬勞之 感)이라 한다. 자식이 생을 얻게 된 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어머님의 구로지덕인 것이다.

내 '구로일'은 음력 12월 19일이다. 새 해로 바뀌기 불과 10여 일 전이다. 지난 해에는 하필 서울에서 수필작가회 행사 가 있는 날이라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 다. 거실로 나오자 "생일 축하합니다"라 며 아내가 손을 잡아 준다. "삼백예순 다 섯 날 중, 딱 한 번 있는 날"이라고. 설마 하니 두번 있는 날도 있을까만 묘한 감동 에 코끝이 시큰했다. 티격태격하기 50년 이 넘은 세월인데 언제 그런 일도 있었느 냐는 듯 가슴에서는 철없는 꽃이 피었다.

촛불을 밝혀 놓은 식탁, 김나는 미역국 곁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올해 건강 티 켓입니다"라고 적힌 하얀 봉투가 놓여있 다. 안에는 사임당의 얼굴 사진이 찍힌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을 거고.

서울행 7시 버스가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다. 생일 축 하라는 아내의 말과 티켓의 메시지에 감 동해서가 아니다. 봉투속에 들어있을 지

폐 몇 장에 감격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눈앞을 스치고 간 희미한 안개 때문이었

아내의 정도 정이지만 해마다 이날이 면 어머님 생각에 늘 목이 메곤 한다. 엄 마라 불러본 기억도 없고 얼굴은 몰라도 나를 세상으로 불러내 주신 분이 아니던 가. 생일 없는 사람도 있는데 생일을 가 졌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약 30년 전 어머님의 유택을 옮기려던 날이다. 흙 속에서 찾아낸 뼈를 일일이 수건으로 닦아내시던 큰집 형님이 "아직 도 아기의 뼈가 남아 있네" 속말처럼 하 시던 말씀을 얼핏 듣고서 나는 너무 놀랐 다. 어린 잔뼈만 따로 골라 하얀 백지 위 에 놓을 때서야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유 를 짐작했다.

누구에게 물은 바 없었던 어머니의 마 지막이 '아아! 그래서였던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숲 속으로 들어가 섧게 울었던 때가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 의료 시설 도 없고 교통수단도 열악했던 시절, 당시 시골에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죽음이 담보였다.

누구의 어머니도 이런 죽을 지도 모르 는 신고(辛苦)를 몇 번이고 겪으셨을 것 이다. 다섯 자식의 어머니는 다섯 번을, 열 자식을 낳으신 어머님은 저승의 문고 리를 열 번이나 붙들고 빌었으리라.

그렇게 자식을 낳아주신 어머님의 구 로는 계산으로 따질 수 없다. 진부한 말 로 하늘보다 높은 은혜다. 갚고 갚아도 죽을 때까지 빚일 터에 오히려 자녀들의 생일, 손자들의 생일이라고 구겨진 주머 닛돈마저 털어 내는 우리의 어머니들! 삶은 갈수록 좋아져 가는데 어쩌다가 축 하의 앞과 뒤가 바뀌었는지!

나는 효라는 글자의 뜻을 한 번도 실천 으로 옮겨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불효 자다. 모든 사랑은 어머니에게서 시작하 여 어머니에게서 끝난다는데 그 모정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온 죄다.

내게 생일을 주신 어머님! 흰 구름 제 맘대로 오가는 청산마루, 어머님의 유택 을 찾아가 차가운 혼유석(魂遊石) 위에 소주 한 잔 올리는 것이 효가 될까? 그것 도 종이 잔에.

소소백발(昭昭白髮)이 싫다고 검은 머리 위장에나 열심인 그런 나를, 아내는 해마다 생일 축하라는 말로 부끄러움을 준다.

세상살이는 일취지몽(一炊之夢), 부 귀영화가 덧없는 것. '구로지일'이면 더 욱 어머님 생각에 꿈만 서럽다.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 FAX 222-4918〉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부 220-0661 문 화 치 부 220-0632 부 220-0692 부 220-0663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